

문화전당재단 신임 경영진 임명 정관 절차 무시 '꼼수 인사' 의혹

이사회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선임 효력 여부 법적논란 일 듯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문화전당재단) 인사를 둘러싼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정관에 명기돼 있는 이사회 소집 없이 신임 이사회와 신임 사장을 임명해 '무원칙·꼼수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신생 법인은 이사회를 구성, 정관 제정, 대표 선임 등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재단정관을 따르지 않은 임원 선정 절차의 효력 여부를 놓고 법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10일자로 문화전당재단 정관을 제정한 데 이어 지난 17일자로 최영준 초대 이사장과 김선숙 사장을 비롯한 비상임이사 11명, 당연직 이사 2명, 감사 1명 등 총 16명의 임원 명단을 발표했다.

하지만 초대 이사장과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재단 정관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일 제정된 문화전당재단 정관 '제3장 이사회' 조항을 살펴보면,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가 심의·의결한다'고 돼 있지만 이사회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또 이번엔 선임 이사들은 임원 선출 및 해임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대부분 인사 발표전까지 신임 경영진의 기본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이사로 임명된 A씨는 "재단은 이사회 중심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이사장이나 대표를 선임하고 의결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며 "상식적으로 재단이 출범할 때는 이사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조차 생략됐다.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사는 "자치단체 등에서 신설 재단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이사회를 가장 먼저 구성하고, 정관을 제정한 뒤 그 정관에 따라 대표 공모 등을 통해 선임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문화전당재단 신임 이사장과 사장 임명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를 철저히 무시했다. 정관에 따르지 않은 선임은 무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진단 관계자는 "문화전당재단은 아 특별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법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고, 광주지역 문화계와 광주시의 추천을 받아 인선했다"며 "정관을 먼저 승인 받고 이후에 임명을 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는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추진단은 다만 추천 인사 면면과 추천 과정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특히 광주시가 이미 성명을 통해 "어떠한 협의도 없이 임원을 선임했다"며 우려의 뜻을 밝힌 상태여서, 지역내 추천을 받았다는 해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적이 나온다.

지역 문화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전체적인 문화전당재단 설립 일정이 늦어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반적인 인선 사례와는 너무 동떨어진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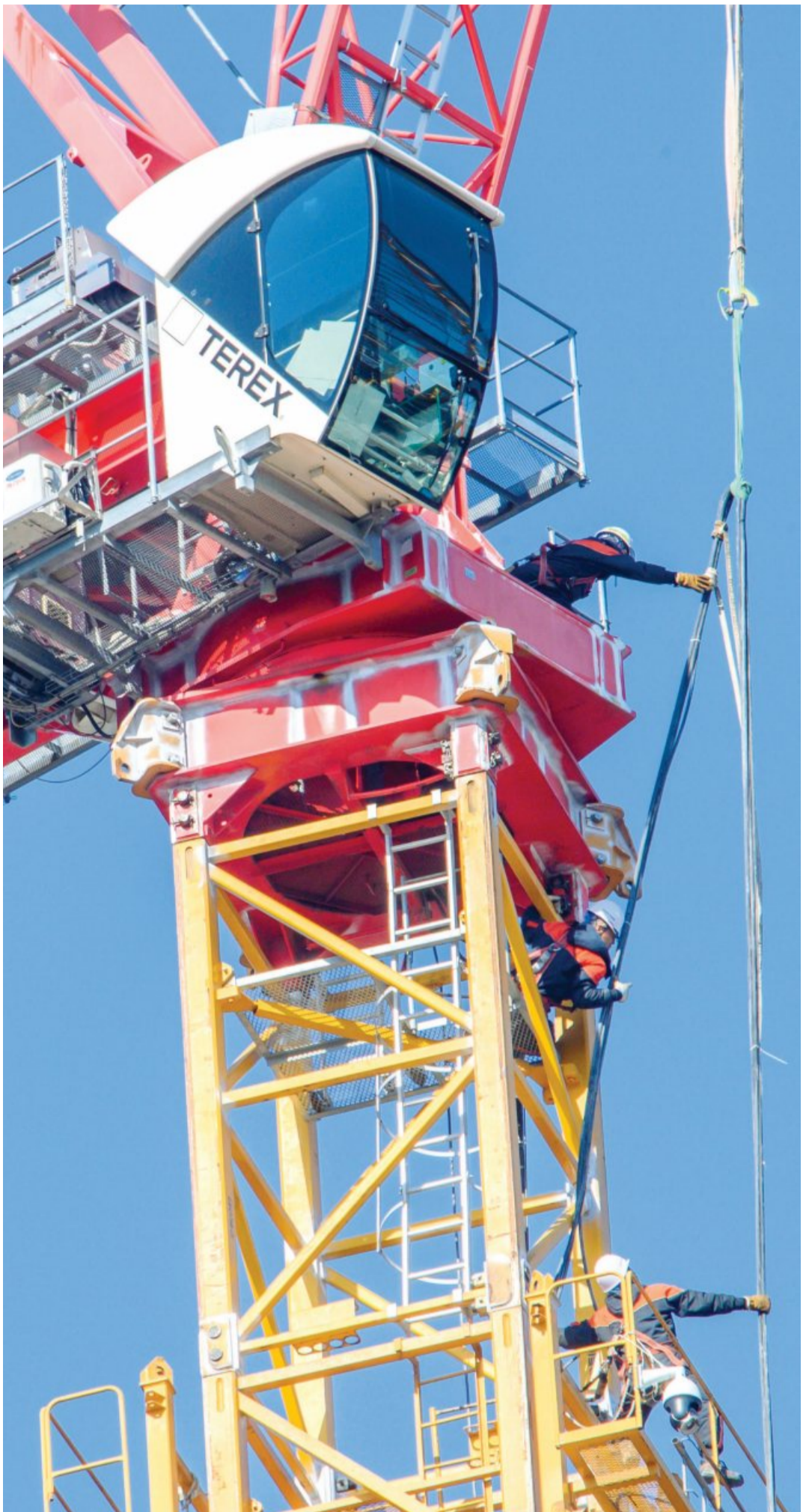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문체부 재직시절부터 주도했던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구)도 "이 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광주 지역민심을 살피며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이런 저도 모르고 광주시정을 책임지는 시장도 몰랐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평판을 듣고 추천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문체부가 아시아문화전당을 새로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정치적 외풍을 막아주고자 했던 제 진심이 이런 결과로 돌아오게 돼 무척 실망스럽다"며 "문체부에 이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와 연구자, 시민사회, 문화단체 등 문화전당 운영의 정상화 및 활성화 위해 꾸려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지원포럼)도 이번 인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지원포럼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초대 이사장 및 사장 임명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방적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는 150만 광주 시민의 지대한 관심사였으며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문화전당 및 문화전당재단의 수장은 전당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사람을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인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전문성과 경영능력, 리더십을 갖춘 인사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충분한 소통 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타워크레인 해체 준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10일째인 20일, 붕괴된 건물에 위태롭게 세워져 있는 타워크레인의 본격적인 해체를 앞두고 현장 관계자들이 상부 개빈(운전석)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올라서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화정 아이파크 사고 현장, 정부가 직접 챙길 듯

차관급 '페이퍼 수습본부' 아닌
장관급 '중앙사고대책본부'
이르면 이번주 내 설립 가능성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고난도 사고로 드러남에 따라 실종자 구조와 수습 등을 정부에서 직접 맡아야 한다는 지적(광주일보 2022년 1월 20일자 1면)과 관련, 장관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관련기사 6, 7면>

9일째 붕괴현장 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머무르고 있는 이용섭 광주시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 장관급이 본부장을 맡는 중앙사고수습 본부를 설립하고 사고 현장에 배치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소관 책임 부처(국도교통부 또는 행정안전부)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본부 설립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현재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산 업재해수습본부가 있긴 하지만, 사고 현장의 상황이 워낙 심각해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장관급이 본부장을 맡는 중앙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립하고, 사고현장에 직접 배치해야만 구조와 수습 작업 등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광주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고,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선 정부 대응장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면서 "아직 정부와 협의의 중언으로 자세히 말할 수는 없으나, 정부 책임 아래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포함한 구조·수 습부터 피해보상, 복구 등 이번 사고와 관련한 모든 부분을 한 곳에서 총괄하고 해결하는 시스템 마련 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구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수습을 위한 조직으로는 고용부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산 업재해수습본부가 있으며, 그 아래 이용섭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돼 활동 중이다.

하지만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장을 차관급이 맡다 보니 타 부처와의 협업·조율 등에 한계점이 노출되면서, 사고 현장에서 서류에만 있고 기능·역할이 없는 이른바 '페이퍼 수습본부'라는 비아냥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그나마도 사고 현장에서 똑 떨어진 세종시(고용노동부)에 배치돼 수시로 변하는 사고 현장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인 한 위원은 "고층 아파트 16개층 일부가 한꺼번에 주저앉은 유례를 찾기 힘든 대형사고"라면서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사고 현장에 장관급 대책본부를 구축해 현장을 수습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해야만, 제2의 추가 사고를 막고 놀란 광주시민은 물론 국민의 마음도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 설 전후 오미크론 확산 비상 ▶2면

복스 - '콜센터의 인류학' '돈의 불장난' ▶14·15면

타이거즈, 함평 스프링캠프서 도약 준비 ▶18면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EQS
THIS IS FOR YOU.

Mercedes-Benz

EQS
This is for you.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확장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쇼룸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603(수완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QS 450+ AMG Line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 3.8, 도심 : 3.8, 고속도로 : 3.7 1회 충전거리(km) : 478, 공차중량(kg) : 2590, 배터리 용량(kWh) : 107.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면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용 연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롬이미지는 국내 시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